「언어연구」, 제18권(2001), 89~102

자연형태론과 최적이론

황 손 문
(경희대학교)

Hwang, Son-Moon. 2001. Natural morphology in Optimality Theory. *Linguistic Research* 18, 89-102. This paper shows that the constraints of morpheme are various. Some morphemes exhibit plural, progressive, and participle. They indicate naturalness and markedness. Natural morphology analyzes iconicity, uniformity, and transparency.

1. 서 론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성(naturalness)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성이란 유표성(markedness)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형태론적으로 자연스러운 범주나 현상을 의미한다. 이점이 유표성의 이론을 내포하지 않는 다른 이론들 이를테면 원리와 매개 변항(principles and parameters)의 이론에 근거한 GB이론 따위와 자연형태론[1] 더 넓게는 자연문법(Natural Grammar)과 다른 점이다. 원리와 매개 변항의 문법에서는 모든 적격의 문장은 모든 표시 단계(심층구조, 표면구조, 논리구조, 음운구조)에서 요구되는 제약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제약들은 절대적이어서 제약들 사이의 충돌이나 그런 때의 홍정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다. 여기에 비해 자연형태론은 모든 형태론적 현상들을 상이한 자연성의 원리들이 충돌하고 홍정한 결과로 보며 따라서 원칙들은 경우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연형태론이 대두되기 전까지 유표성이나 자연성에 대한 관심은 음운론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음운론에서 다루고 있는 최적이론(Optimality Theory)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제 II 장에서 자연형태론이란 무엇이며 자연성과 유표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자연성과 유표성은 반대되는 것으로 형태론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제 III 장에서는 최적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기존의 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도

1 자연형태론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로 독일어의 굴절형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출이론은 분석이 불가능하면 그 자체의 분석을 할 수 없지만 최적이론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각하여 가장 적게 위반한 후보가 최상의 것으로 결과를 얻는다. 제 Ⅳ 장에서 제약의 위계에 의한 자연형태론을 분석하고 자연형태론을 분석하는데 표상성과 균일성 그리고 투명성에 의한 최적이론의 분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제 V 장에서는 결론으로 기존의 자연형태론의 입장을 최적이론으로 재고찰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연형태론

자연형태론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로 독일어로 굴절형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연형태론은 주목할 만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형태론에 대한 자료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료 대부분이 독일어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형태론은 1970년대에 당시 음운론의 새로운 제안이었던 Stampe (1979)의 자연음운론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다. 음운론에서는 Stampe 이전부터도 자연성(naturalness)에 대한 관심이 있어 왔다. 자연언어에서는 논리적으로 똑같이 타당한 구조들이 고르지 않는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음운부에서의 단순 순음과 연구개화 순음의 차이 또는 형태부에서 삽입사(infix)와 접미사(suffix)의 쓰임의 차이 등이 모든 형태나 범주들이 그 자연성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연형태론이 대두하기 전까지 유표성이나 자연성에 대한 관심은 음운론의 전유물이었다. 이것은 모든 형태론적 형태들은 똑같이 타당하다는 Saussure의 언어학적 기호의 자의성[2](the arbitrariness of the linguistic sign)이라는 생각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문법 범주나 형태들이 보여주는 분포의 차이 즉 유표성이나 자연성의 차이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결국은 그보다 더 큰 동기의 표출이라고 생각할 때 그 보다 큰 동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된다. Jakobson(1968)의 논문에서 동기 중 하나에 대해 도형적 표상성(diagrammtic iconic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표상적인 형태론적 형태들(iconic morphological forms)이 비표상적인 형태론적 형태들(noniconic morphological forms)보다 더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 언어는 표상적인 형태를 비

2 1966년에 발표한 Jakobson의 Quest for the essence of language라는 논문에서 시도되었는데 그 동기중 하나에 대해 도형적 표상성(diagrammatic iconi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상적인 것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표상(icon)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1. 표상성 (iconicity)

Jakobson의 표상성이란 개념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논리학자 C. S. Peirce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상이란 쉽게 말해 하나의 그림을 가르킨다. Mayerthaler는 이에 대하여 자연성은 유표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유표성은 형태론적 문맥(하나의 형태론적 의미와 다른 형태론적 의미와의 관계)과 형태론적 부호 혹은 기호화(형태론적 의미와 그것의 표현)에 둘 다 적용이 된다. A가 B보다 더 유표화되는 표현 A와 B의 쌍에 대해 무표 혹은 자연적 기호화(coding)는 A의 표현이 B의 표현 보다 더욱 더 유표화된다. 즉 B는 확실한 실현을 가지고 있지만 A는 그렇지 못하다. 혹은 B의 실현은 A보다 음운론적으로 더욱 실질적이다. 이런 종류의 기호화를 표상성(iconic)이라고 말한다.

영어에 있어서 유표성 관계의 예는 굴절의 단수 (비교적 무표화되는 경우)와 복수(비교적 유표화 되는 경우)형이다. 복수는 단수보다 더욱 더 유표화 되는데 복수는 문맥적으로 덜 빈번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은 언어에서 단수형은 집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되는 반면 복수는 개개인들을 언급하는데 결코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적으로 사용된다. 복수와 단수에 대한 자연스런 기호화는 복수가 확실한 표지어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고 단수는 그렇지 않다. 즉 단수가 아니라 복수는 유표화된 기호화를 가지고 있다. 영어 단수 dog와 복수 dogs는 이런 종류의 기호화를 보여준다. 반대로 sheep(복수 sheep)은 덜 자연스런 기호화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복수형은 유표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태론의 표상의 예로서는 복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굴절어미나 품사의 전환을 위한 각종 파생 접사 등을 들 수 있다. Peirce나 Jakobson 그리고 자연형태론의 근본적인 생각은 보다 복잡한 의미 내용은 보다 복잡한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단수형인 dog가 복수형에서는 '-s'라는 접미사가 첨가된 dogs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관계를 자연형태론자들은 구성적 표상성(constructional iconicity)이라고 부른다. Haiman(1985b)의 표현을 빌리면 형태적 복잡성은 의미적 복잡성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태론에서는 자연스러운 관계이고 또 형태부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복수형 sheep과 단수형 sheep에 있어서 수의 기호화와 같이 서로 의미와 형태의 복합성이 같은 경우를 비표상성(noniconic)이라고 부른다.

다음의 (1)에서는 a가 표상성(iconic)인 것을 b는 비표상성(noniconic)인 것을 그리고 c는 반표상성(countericonic)인 것을 예시하고 있다.

(1)

	단 수	복 수
a.	boy	boys
	dog	dogs
	bench	benches
	baby	babies
b.	sheep	sheep
	deer	deer
	trout	trout
c.	formula	formulae
	oasis	oases
	basis	bases

예를 들면 영어 변화에서는 비표상적인 것이 표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 더욱 더 자연스럽다. 비표상성보다 더욱 덜 자연스러운 반표상적(countericonic)기호화가 있다. 확실한 표지어에 의해 실현된 덜 유표화된 의미 단순형이 있는 반면에 더욱 더 유표화된 복수형은 없다.

표상성은 기호화에 있어서 유표화에 적합한 요소만은 아니다. 두 개의 기호화가 똑같이 표상적인 곳에서 더욱 더 많은 일치(uniform)는 덜 유표화된다. 즉 더욱 더 자연스러움을 의미한다. 일치성이란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기호화된다. 예를 들어 영어에 있어서 동사의 속성인 진행형의 기호화는 최대한으로 일치한다. 왜냐하면 과거형을 나타내는 접미사의 경우에 원형동사에 '-ed'로 진행형의 접미사인 경우에는 동사원형에 '-ing'로 언제나 실현되기 때문이다.

2. 자연성(naturalness)과 유표성(markedness)

자연성에 대한 음운론에서의 관점은 자연스러운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자연성은 유표성(markedness)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자연언어에서 자연성과 유표성에 대하여 기술해 보자.

(1) 자연성 (Naturalness)

① 세계의 여러 언어에 널리 퍼져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② 언어 변화에 비교적 저항적이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③ 언어 변화 과정 특히 유추 변화 과정에서 빈번히 살아 남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④ 말을 배우는 어린이가 일찍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⑤ 실어증과 같은 언어 장애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⑥ 발화나 언어 실수에서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⑦ 통상언어화(pidginization)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혼합언어화(credization) 과정에서 일찍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⑧ 개인의 언어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거나 널리 분포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들은 언어 외적 증거들이기 때문에 자연성의 증명은 자칫 잘못하면순환성에 빠지기 쉽다 (Bauer 1988). 어떤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언어 보편적이고 언어 보편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자연형태론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형태론적 보편성을 인지학적/기호학적 원리(cognitive/semiotic principles)와 관련시키고 있다.

자연성이 유표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란 보다 자연스러운 것은 보다 무표적임을 뜻하고 반대로 보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보다 유표적이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t/와 /d/의 두 분절음이 있을 때 양자는 유무성(voicing)의 구별을 제외한 모든 자질을 공유한다. /d/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t/에게는 필요 없는 [유성음]이라는 자질이 필요하고 이때 /t/를 무표의 음으로 그리고 /d/를 유표음이라고 한다. /t/는 /d/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덜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Mayerthaler(1981)는 형태구조들이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분포의 정도, 어린이가 언어를 배울 때 쉽고 어려움의 정도, 언어장애에 관여하는 정도 등에 있어서 같지 않다는 관찰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Mayerthaler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표성을 구별하였다.

(2) 유표성[4](Markedness)
① 의미론적 범주의 유표성
② 기호화의 유표성

3 SPE의 유표규약(marking convention)에 해당 된다.
4 자연형태론에서 사용하는 '유표성'이란 프라그 학파에서 사용한 '유표시성'과는 다르다.

③ 기호화된 범주의 유표성 즉 형태론적 유표성

Mayerthaler가 생각하는 의미론적 유표성이란 화자의 표본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1인칭은 다른 인칭 보다 의미론적으로 덜 유표적이며 현재형은 다른 시제형보다 그리고 단수형은 복수형보다 덜 유표적이다.

기호화의 유표성은 형태론에서의 의미와 표현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유표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Mayerthaler는 기호화의 유표성을 또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3) 기호화의 유표성
① 구성적 유표성(constructional iconicity)
② 균일성(uniformity)
③ 투명성(transparency)

구성적 표상성은 의미와 표현 사이의 가장 자연스러운 무표의 관계는 보다 복잡한 뜻이 보다 복잡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일반성을 나타낸다. 균일성은 또한 의미와 표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Mayerthaler에 의하면 하나의 의미 개념이 하나의 표현과 대응할 때 이 관계는 최대로 균일하다고 한다. 투명성은 하나의 표현이 하나의 의미 개념만 나타낸다면 양자 관계는 최대로 투명하다.

3. 최적이론(Optimality Theory)

최적이론(Prince & Smolensky 1993)은 아래의 기본원리로 이루어진 적형성 제약(well-formedness constraints)들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최적이론에 대한 배경적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겠다.

(1) 최적이론의 원리(Principles of Optimality Theory)
① 보편성(Universality)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은 모든 문법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제약들의 집합 'Con'을 제공한다.
② 위반 허용성(Violability)
제약은 위반 가능하다. 그러나 위반은 최소이어야 한다.
③ 지배관계(Ranking)
'Con'의 제약들은 특정 언어에 따라 다른 지배 관계를 형성(ranked)하는데 이러한 지배관계에 의하여 위반의 최소화라는 개념이 정의

된다.

④ 포괄성(Inclusiveness)
제약위계에 의해 평가 될 후보들은 구조의 적형성에 대한 일반 개념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고 특별한 구조적 표기, 변형, 제약을 가진 특정 규칙이나 보상원리가 없다.

⑤ 병렬성(Parallelism)
제약위계의 최대만족은 위계전체와 후보전체에 관하여 평가된다. 연속적인 파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적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제약들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제약은 경우에 따라서 위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적이론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위반 허용성(violability)이라고 부르며 위반 허용 상황은 최소화(minimal)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제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약이 다른 제약에 의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의 최종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약들간의 지배관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제약들간의 지배관계는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최적이론에서 문법의 역할은 위반 가능하고 지배관계가 정해진 제약들의 체계에 의하여 최적의 결과(Optimal output)를 선택하는 것이다. 최적의 결과란 주어진 제약들 하나도 위반하지 않거나 제약들간의 지배관계에서 가장 하위의 제약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위반 허용성의 최소화라고 일컫는다.

최적이론의 보편성원리에 의하여 구조 제약들은 모든 문법에 존재하므로 한 언어에서 명백히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반되는 제약들도 적당한 조건에서는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적이론에서 보편문법은 제약들의 집합(Con), 주어진 하나의 기저형(input)으로부터 표면형으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기들을 생성해 내는 함수(Gen), 함수에 의하여 생성된 모든 표기들을 주어진 제약위계에 관하여 평가하는 함수(Eval)로 구성된다.

(2) Gen (in_i) → {$cand_1$, $cand_2$, ..., $cand_n$}
Eval ({$cand_1$, $cand_2$, ..., $cand_n$}) = $cand_k$ (in_i에 대한 결과)

Gen에 의하면 생성된 각각의 표면형들은 최종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후보(candidates)라고 이름짓는다. 최적이론의 포괄성 원리에 의하여 후보는 최소한 모든 언어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를 포함하므로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개수를 가질 수 있다.

최적이론의 병렬성 원리는 제약위계가 완전히 형성된 결과 표기 후보들을 다양한 음운적 형태적 과정의 결과와 함께 평가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기저형 in_i에 대한 Gen의 결과는 동시에 여러 음운 형태과정을 포함한다. 최적이론에서 문법의 구성은 제약들의 지배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들의 지배관계는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들의 적용 순서를 바꾸었을 때 각각 다른 후보를 최적 표기로서 선택하게 될 경우 특정 언어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음성표기를 최적의 결과로 선택하게 하는 관계로 정해진다. 이처럼 제약들 사이의 지배 관계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최적이론에서는 충돌(conflict)이라고 부른다. 아래의 표에서 제약들의 충돌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은 제약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음영으로 표기된 곳은 그 앞에서 이미 제약 위반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는 최적의 결과로서 선택된 것임을 표시하고 제약들의 지배관계는 도표로 표기된 제약들의 순서로 정해진다.

(3) a. 제약들간의 충돌 /기저형/

/후보표기/	제약 A	제약 B
☞ 후 보 1		*
후 보 2	*	

b. 제약들간의 충돌 /기저형/

/후보표기/	제약 A	제약 B
후 보 1	*	
☞ 후 보 2		

위에서 후보1은 제약B를 위반하고 있다. 제약A가 제약B를 지배하고 있는 (3a)의 지배관계는 후보1이 최적의 결과로 선택된다. 즉 제약들의 지배관계 변화가 다른 결과를 유도함으로 제약들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후보1을 실제 결과로 가정한다면 이 언어의 문법은 (3a)의 지배관계 즉 A≫B을 보유할 것이다. 기호 ' ≫' 는 제약들간의 지배관계를 나타낸다. (3b)의 경우에 후보 1은 제약 A를 위반하고 있어서 제약 B가 제약 A를 지배하고 있는 (3b)의 지배관계는 후보2가 최적의 결과로 선택된다. (3a,b)의 논의에서 본바와 같이 (4a)와 (4b)의 경우에 하위제약의 준수가 명백할 때에는 그 제약에 의하여 최적의 결과가 선택될 것이고 (4b)에서는 후보1과 후보 2가 동시에 제약 A를 위반하고 있지만 후보 2에서는 제약 B를 위반

하고 있지 않아서 후보 2가 최적의 선택이 된다. (4c)에서처럼 두 후보 모두 제약 C 보다 상위의 제약에 대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고 제약 C를 위반하는 개수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위반의 개수가 가장 적은 후보가 최적의 결과로 선택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반의 절대적인 수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위반의 수가 적고 많음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약의 위반은 최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호 '!'는 최적이론에서 치명적으로 위반한 것을 나타낸다.

(4) a. A ≫ B /기저형/

/후보표기/	제약 A	제약 B
후 보 1		*!
☞ 후 보 2		

b. A ≫ B /기저형/

/후보표기/	제약 A	제약 B
후 보 1	*	*!
☞ 후 보 2	*	

c. A ≫ B /기저형/

/후보표기/	.....	제약 C
☞ 후 보 1	.....	*
후 보 2	.....	***

지금까지 설명을 요약하면 최적이론은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저형에 기반을 둔 다시 쓰기 규칙(rewriting rule)이 아니라 결과에 근거한 제약을 이용한다. 즉, 언어 특정 규칙이나 절차에 의하여 기저형을 단계적으로 변형시켜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대신에 결과 형태로 가능한 후보들의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을 적형성 제약들의 체계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적이론은 가능한 후보들로부터 실제 결과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4. 자연형태론의 최적이론으로의 분석

자연형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연성에 대한 초점을 음운론에서의 관점에서 최적이론(Prince & Smolensky 1993)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표상성과 비표상성 그리고 반표상성에 대한 위계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표상성 (iconicity)

자연형태론에서 자연성의 개념을 유표성 개념과 관련하여 정의하였다. 기호화의 유표성에서 표상성(iconic)과 비표상성(noniconic) 그리고 반표상성(countericonic)이 있다. 그 세 가지를 합하여 표상성(iconicity)이라고 한다. 구상적 표상성은 표현 사이의 가장 자연스러운 무표의 관계는 보다 복잡한 뜻이 보다 복잡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일반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의 두 형태가 있을 때 그리고 B는 A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뜻에 가외의 뜻이 첨가된 것일 때 B의 형태가 A의 형태에 가외의 것을 첨가해서 표현된 것이라면 그 관계는 자연스러운 무표의 관계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의미론적 유표성이 형태론적 유표성으로 나타날 때 즉 의미론적으로 유표인 범주가 형태상의 증가에 의해 표현될 때 그와 같은 관계를 구상적 표상성(constructional iconicity)을 갖는다고 말한다.

표상성(iconicity)은 의미와 표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상성(iconic)은 보다 복잡한 의미가 보다 복잡한 형태의 표현으로 일반성을 가지는 경우이고 비표상성(noniconic)은 구상적 표상성이 없는 경우 즉,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형태에 의해 표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반표상성(countericonic)은 구상적 표상성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로 영어의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대체로 순수한 영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차용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boy → boys　　girl → girls
　　story → stories　　pen → pens

(2) iconic ≫ noniconic

/boys/	iconic	noniconic
boy+boy	*	
☞ boys		*

(2)에서는 영어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경우에 규칙적으로 단수형에 '-s'나 '-es'가 붙는 경우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iconic한 것이 최적이론에서는 상위의 지배관계(ranked)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2)에서 iconic한 것이 noniconic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boy+boy 보다 boys가 최적으로 선택된다.

(3) sheep → sheep
trout → trout
deer → deer

(4) noniconic ≫ iconic

/sheep/	noniconic	iconioc
sheeps	*	
☞ sheep		*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표상성(noniconic)이 표상성(iconic)인 것보다 상위의 지배관계에 위치하므로 복수형에서 sheeps보다 sheep이 더 상위의 지배관계에 있다.

(5) phenomenon → phenomena
mouse → mice

(6) countericonic ≫ noniconic

/phenomena/	countericonic	noniconic
phenomenons	*	
☞ phenomena		*

완전히 단수형과 복수형이 완전히 무엇인지 예측 불가능한 경우로 순수한 영어에서 유래된 형이 아니라 외국어 차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반표상성이다. 반표상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영어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표상성이 비표상성을 지배하는 경우이다.

영어에서 복수형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 규칙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외래어 표기에서 유래한 복수형이 가장 덜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상의 예를 지배관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 iconic ≫ noniconic ≫ countericonic

/boys/	iconic	noniconic	countericonic
boy+boy	*		*
☞ boys		*	*

이상에서 본 결과 영어의 복수형을 구조적 표상성(constructional iconicity)

울 하나로 묶어 위계를 정하면 하나의 복잡한 형태는 하나의 복잡한 의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최적이론으로 볼 때 표상성(iconic)이 비표상성(noniconic)을 지배하고 비표상성은 반표상성(countericonic)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균일성(uniformity)

균일성은 의미와 표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의미개념이 하나의 표현과 대응할 때 이 관계는 최대로 균일하다. 예를 들어 영어의 비교급 '-er'은 비교급을 나타낼 때 규칙적으로 쓰이는 반면 'more'나 'better'는 불규칙적인 비교급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비교급 '-er'을 붙이는 경우에는 하나의 의미개념이 하나의 표현과 대응하는데 'more'는 균일성을 해결할 수 없고 보충법으로 해야 한다. 영어에서 1음절 형용사 비교급 '-er'을 붙이는 균일성을 가지는데 2음절이상의 형용사 비교급은 균일하게 쓰이지 못하고 '-er'혹은 'more'라는 보충영역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의미적인 보충력 영역(suppletion domain)이 필요로 한다. 최적이론으로 위계를 보면 균일성은 보충성을 지배한다.

(8) 영어의 비교급인 경우

a. happy → happier　　wise → wiser
　red → redder　　narrow → narrower

b. beautiful → more beautiful
　difficult → more difficult
　interesting → more interesting

(9) 균일성(uniformity) ≫보충성(suppletion)

/ happier /	uniformity	suppletion
☞ happier		*
more happy	*	

균일성과 보충성에 있어서 영어의 비교급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 의미개념은 항상 '-ing'로 표현되므로 의미와 표현의 관계는 항상 균일하나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화하는 경우에 동사의 과거형이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끝에 '-ed'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도 일치를 위해서 '-ed'를 붙이는 경향

이 있다

3. 투명성(transparency) vs. 불투명성(opaque)

투명성은 균일성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의미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의 표현이 하나의 의미개념만을 나타낸다면 양자는 최대로 투명하다. 그 반대의 관계는 불투명(opaque)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최상급을 나타내는 경우에 원급에 '-est'라는 표현은 항상 최상이라는 의미개념만을 나타내므로 최대로 투명하다. 그러나 '-er'이 붙는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동사 'write'에 '-er'이 붙는 경우에 명사가 되는데 행위자(agent)나 도구(instrument)를 나타내는 반면 형용사나 부사에 붙으면 비교의 개념을 가지므로 그 표현과 의미의 관계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투명성이 불투명성을 지배하게 된다.

(10) a. happy → happiest
old → oldest
pretty → prettiest
b. old → older
write → writer
ride → rider

(11) 투명성(transparency) ≫불투명성(opaque)

/happiest/	transparency	opaque
☞ happiest		*
most happy	*	

5. 결 론

자연형태론은 자연음운론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다. 자연형태론에서의 자연성과 그 개념의 반대인 유표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유표성은 무표성보다 덜 투명하다. 유표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상적 표상성(constructional iconicity)과 균일성(uniformity) 그리고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해 최적이론으로 살펴보았다. 구상적 표상성은 의미와 표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표상성(iconic)과 비표상성(noniconic) 그리고 반표상성(countericonic)이 있다. 하나의 복잡한 의미는 하나의 복잡한 표현으로 되

는 표상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지배관계상 가장 상위에 놓인다.

균일성과 투명성도 표상성과 마찬가지로 의미와 표현에 관한 것이다. 즉 균일성은 하나의 의미개념이 하나의 표현에 대응할 때이고 투명성은 하나의 표현이 하나의 의미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결국 자연형태론은 적격의 것만 표시하고 제약들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다르게 형태론적으로 자연스러운 범주나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운론의 입장에서 최적이론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참고문헌

전상범 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Andrew Carstairs & McCarthy 1992. 'Current Morphology.' Linguistic Theory Guides Edited by Richard Hudson

Bauer, L. 1979. Against word-based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0,508-9

_____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_____ 1988. *Introducing Linguistic Morpholog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Haiman, J. 1985b.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Benjamins

Jakobson, R 1968. *Child Language, Aphasia and Linguistic Universals.* The Hague: Mouton

_____ 1988. *Words and meaning. London* : Longmans

Mayerthaler, W. 1981. Morphologische Natürlichkeit. Wiesbaden: *Athenaion; translated as Naturalness in Morphology* (1988). Ann Arbor: Karoma

Prince, Alan. &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and Rutgers University. TR-2, Rutgers University Cognitive Science Center

Stampe, D. 1979. *A Dissertation on Natural Phonology.* New York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30-701
Email: 3443@hananet.net

접수일자: 2001. 2. 5.
개재일자: 2001. 4. 3.